

지혜의 말씀

불기 2569년 4월 / 통권 529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그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패배시키고 내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앙심을 품는다면
그 원한은 고요해지지 않으리라.

‘그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패배시키고 내 물건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그 원한은 고요해 지리라.

人若罵我 勝我不勝 快意從者 怨終不息.
인약매아 승아불승 쾌의종자 원종불식.

人若致毀罵 役勝我不勝 快樂從意者 怨終得休息.
인약치훼매 역승아불승 쾌락종의자 원종득휴식.

- 법구경 계송 3, 4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도반(道伴) / 운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7

『법구경』 해설 - 3, 4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4월 법회 및 행사 · 14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설담장학회 안내

용왕제 안내

법당 연등점수 안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제25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저녁예불시간 변경 안내

제23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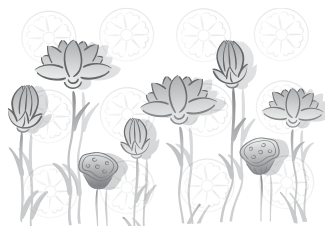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선가의 이야기 中

도반(道伴)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사리불과 목건련은 본디 힌두 바라문의 높은 스승들이었다. 그들은 존경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이백오십 명이나 되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마승비구를 만나 그의 단정하고 깨끗하며 자비로운 용모에 존경심이 생겨 물었다.

“당신은 필경 아주 훌륭한 분의 제자일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행동에 품위가 있으며 자비로운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니 당신을 가르치신 분은 분명 일체지자일 것입니다.”



출가 사문은 단정하고 품위 있는 위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경전에서는 경계하고 있다. 스님들의 보여지는 모습이 불교의 품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승비구는 사리불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불이시며 모든 것은 이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늘 가르치십니다.”

이로부터 사리불은 마승비구의 인도로 부처님을 뵈고 법문을 듣고 제자가 된다. 그는 절친한 도반인 목건련을 이해시켜 같이 출가한다. 둘은 본래 지혜가 높았고 가르치심을 실행하는 수행력도 뛰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으뜸 제자가 되었다.

그들 사리불과 목건련은 출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서로 격려하고 이끌고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는 진리의 벗이었다. 도반이란 참다운 삶 진리의 삶을 위해 서로 스승이 되고 서로 비판자가 되고 서로 용기를 주는 벗과 벗의 사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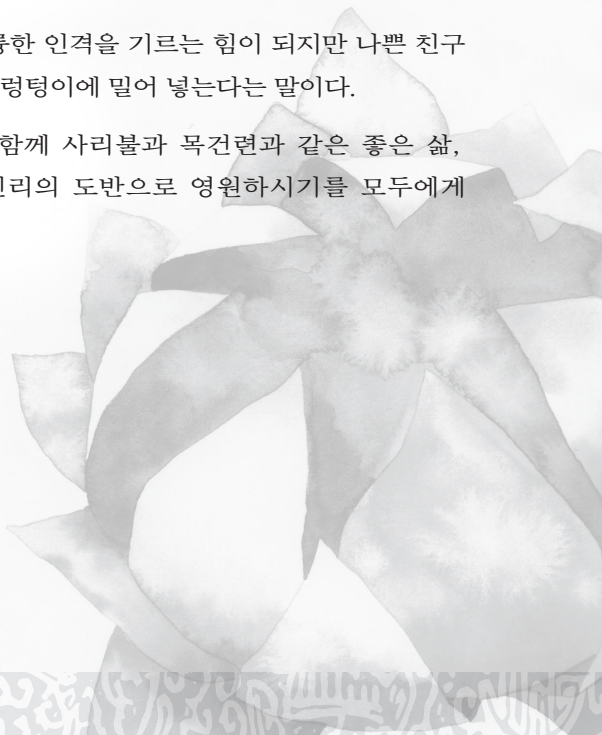


송리지갈 직용천심 松裏之葛 直聳千尋
모중지목 미면삼척 茅中之木 未免三尺
소나무 사이의 좁은 천 길을 솟지만
떠 속의 나무는 석 자를 면치 못한다.

- 초심 -

좋은 친구는 훌륭한 인격을 기르는 힘이 되지만 나쁜 친구
는 오히려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다는 말이다.

주변의 벗들과 함께 사리불과 목건련과 같은 좋은 삶,
참 삶의 도반, 진리의 도반으로 영원하시기를 모두에게
기원한다.



『법구경』 해설 - 3, 4

거만한 뗏사 비구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뗏사 비구는 부처님의 고모 아들로 고종사촌지간이었다. 그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출가하였는데 몸이 하도 뚱뚱해서 뗏사(뚱보)라고 불리었다. 뗏사는 부처님과 친척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빼기면서 구참 흥내를 내기 일쑤였다.

이날도 뗏사는 가사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법당 한가운데 덕 높은 구참 비구처럼 거만히 비스듬하게 앉아 있었다. 먼 곳에서 부처님을 뵈려고 법당에 들어선 일단의 비구들이 뗏사를 보고 이 분은 아마도 대장로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



하고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아랫사람의 예의를 다 갖추어 던지시 “스님께서는 몇 안거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여 아직 한 안거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단의 젊은 비구들은 승가의 위계는 세속의 나이와 상관없이 출가 순으로 좌차가 정해지는데, 이제 갓 출가해서 승랍도 일 년이 안 된 신출내기 비구라는 말에 격분해서 뗏사를 꾸짖었다.

“이 오만한 늙은 비구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찌 대 선배 비구들을 보고 삼배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선배들의 시중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오. 잘못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늙은이 같으 니라구.”하고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뗏사비구는 계급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거만하게 말했다.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왕족의 계급으로 부처님과 사촌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모두 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하고 울부짖으며 부처님께로 뛰어갔다.

부처님께서는 “뗏사여,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들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땃사와 젊은 비구들로부터 일련의 자초지종을 듣고 땃사를 타일렀다.

“땃사여, 네가 이 승랍 높은 비구들에게 모든 시중을 들었어야 옳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법당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부처님이시여,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단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 전생에서도 수없이 이 같은 행동을 했었느니라.’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 옛날 베나레스의 한 왕이 베나레스를 통치하던 시절에 설산에서 수행하던 데왈라와라는 수행자와 나라다라는 수행자가 각기 잠시 도시에 머물려고 내려왔다가 우연히 옹기장이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 수행자가 한 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자정이 넘어 나라다가 소변이 마려워 밖으로 나가다가 어두운 탓에 실수로 데왈라와의 머리털을 밟았고, 또 들어오면서는 데왈라와가 나라다를 골려주기 위해 일부러 목을 밟히는 계락을 꾸민다. 이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나라다는 데왈라와에게 용서를 구했음에도 데왈라와는 저주를 퍼붓는다.



수천의 빛을 비추고 타오르는 열기를 지니며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내일 새벽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그대의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갈라져 버릴지이다.

이에 나라다도 지지 않고 데왈라와에게 저주를 내렸다.

수천의 빛을 비추고 타오르는 열기를 지니며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내일 새벽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죄 있는 사람의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갈라져 버릴지
이다.

이렇게 서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라다에게는 과거 40겁의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속명통과 미래 40겁을 예측할 수 있는 천안통이 있었다. 내일 만일 해가 뜬다면 누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인지 뻔한 이치라 나라다는 그래도 데왈라와가 불쌍하고 측은하여 신통력으로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자 살기가 막막한 백성들이 왕궁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왕에게 태양이 떠오르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왕은 그 까닭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었다. 결국 두 사문 데왈라와와 나라다의 갈등으로 생긴 일이며, 데왈라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이 저주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데왈라와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간청했지만, 데왈라와는 머리가 일곱 조각이 나더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나라다의 조언을



언어 억지로 데왈라와의 머리에 진흙을 바르게 하여 머리가 깨지지 않게 하는 편법을 써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왕은 아난다이고, 데왈라와는 뗏사이고, 나라다는 여래이다. 그때에도 뗏사는 지금 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렸다.”고 말씀하시며 표지의 계송을 읊으셨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불기 2569년 5월 5일(양) 월요일 오전 10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수미산악회 6회차 정기산행

■ 지리산 칠암자 순례길

■ 4월 13일(일) 오전 7시 대광사 출발 ■ 동참금 5만원

제25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 2025년 5월 24일(토) 오후 6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대광사 4월 법회 및 행사

- ◇ 3월 23일 : 용왕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3월 29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3월 3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 4월 12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28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31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용왕재

- 일 시 : 3월 23일(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3만원

법당 연등접수 안내

- 대웅전 10만원 ■ 관음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 ■ 영가등 5만원



대광후원회

(2025.2.20.~2025.3.18.)

황두관 1만원	이인숙 2만원	정대식 5만원	박진호 10만원
이순남 1만원	홍승운 2만원	조한분 5만원	이현실 10만원
정진이 1만원	윤숙희 2만원	차재원 5만원	김중현 12만원
박미애 1만원	이봉희 3만원	김주영 5만원	김민재 20만원
김병문 2만원	이우권 3만원	배동환화 5만원	(주)카텍홀딩스 30만원
변창인 2만원	구자민 3만원	장세미 10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지혜의말씀 후원(2025.2.20.~3.18.)

김영우 10만원 / 이현실 5만원 / 이영희 5만원 / 오현우 5만원 / 청향심(영) 2만원

♥ 설담장학회(2025.2.20.~3.18.)

주지스님 10만원 / 이현실 50만원 / 최귀향 5만원 / 이봉희 5만원 / 제영길 3만원
진병천 3만원 / 변지오 2만원 / 구자민 2만원 / 이순남 1만원 / 조홍준 1만원
이윤정 1만원 / 이유림 1만원

♥ 안락심보살님 49재 동참자

- 30만원 ▶ 강미선 ● 15만원 ▶ 신분식
- 10만원 ▶ 허경미/정옥희/윤순현/김정순/류혜숙/정은숙/배은숙/박경리
김성철/조한분/주정순/하영순/김호진/이동희/강재선/김승란/박영자/문순자
바라밀회(김용순)/최덕희/김향자/박덕옥/임계주/공미애/이경순
- 5만원 ▶ 조숙희/김승화/이봉희/박외순/홍정숙/김일순/김미화/홍방옥
이순득/강호연/이금재 ● 3만원 ▶ 임정순/박경석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대광사 수미산악회 회원모집

- 매달 3주 토요일 산행
(단, 사중 행사가 있을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회비 5천원 - 문의 및 접수 ☎ 545-9595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저녁예불시간 변경안내

- 4월 1일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

佛紀 2569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3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요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5년 2월 25일~3월 19일	2025. 3. 25(화) ~ 12월중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5년 3월 22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중순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